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7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일년의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았지만, 지금 우리 마음은 어지럽습니다. 세상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치러짐이 없고 그릇됨이 없는 하나님의 법도를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영큼한 계산을 앞세우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위임해주신 일에 게을렀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참된 신뢰의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1 ..... 인도자

♠ 교 독 문 ..... 16 시편63편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I. 최인환 전도사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다함께

성경봉독 ..... I. 눅6:43-45 ..... 인도자

II. 마7:1-5 ..... 김인걸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좋은 나무 ..... 김재흥 목사

II. 실상을 보는 눈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헌신의 찬송 .....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 다함께
- 헌금봉헌 ..... 다함께
-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맑고 고요한 사랑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몸을 낮추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번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굴복해 주님이 주신 소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울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은총과 선물을 찾아내는 삶의 명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제2여선교회 주최예배	7월 기도의 밤
말씀 : 장영숙 전도사	인도 : 김기석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염혜영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인도자 구성실 장로	인도자 유혜경 집사

<b>7월</b>	영접위원	방문성	김인걸	박석희	송양진	이증자	이건화
	헌금위원	윤석철	이인웅	김준호	곽혜자	배상순	박혜경

## 성서의 문을 여는 마음

성서를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성서를 늘 새롭게 읽고, 재해석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해하고 알아온 성서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더 깊은 깨우침을 얻는 일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혀 새로 대하듯 성서를 읽어나가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 한 성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풍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한 내게는 그 알고 있는 부분만 보일 뿐입니다. 성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깊고 깊은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참, ‘동양고전’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글이 있군요. 제가 좋아하고 가깝게 지내는 한희철 목사님이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선생님의 쓰신 <<강의>>라는 책을 읽고 쓰신 글인데, 성서읽기와 관련하여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글이기에 집사님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모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또한 나 자신을 몹시 부끄럽게 하는 책을 읽고 있다. 신영복 선생이 쓴 <<강의>>라는 책이다. 그가 교수로 있는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논어·주역·맹자·노자 등 동양의 고전을 두루 다루고 있다.(……)

그의 이해에는 애매함이 없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이야기할 때 어색함이나 막힘이나 과장이 없다. 장구한 역사와 누대에 걸친 성인들의 삶과 사상을 짧고 쉬운 문장으로 풀어낸다. 그런 안목이 어찌 그냥 생기는 것이겠는가. 해석이 더 어렵고 애매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경험하기에, 군더더기 없는 그의 이야기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덤처럼 설득력도 자연스럽다. 맹자에 나오는 관어해자 난위수(觀於海者 難爲水,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한다)라는 말을 신영복 선생도 좋아한다고 했다.

시공을 뛰어넘는 적용 또한 적절하다. 옛 시간 속에 고리타분하게 갇혀 있던 문자와 생각들이 툭툭 먼지를 털고 살아 있는 숨결로 다가선다. 체온이 담긴 손길로 다가와 시대의 손을 잡는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징한 거울로 바라보게 한다.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는 주관이 듬직하다. 쉽게 동요하거나 동의하

지 않는다. 내 눈으로, 시대의 눈으로 보려 한다. 그가 살아왔던 간단치 않았던 삶과 경험,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했으니, 동양의 고전을 대하는 그의 모습 앞에, 성서를 대하는 내 모습은 너무 가볍고 너무 얇다. 딱딱해진다.

일상을 메모하는 수첩을 열어 오늘 날짜인 2005년 4월 25일 란에 ‘불영과불행’ (不盈科不行)이란 말을 기록해둔다. 역시 맹자에 나오는 말로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법이다’는 뜻이다. 무디고 허술한 나를 돌아보며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이었다. 이제쯤엔 채우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을 정직한 마음으로 버릴 수 있었음 좋겠다.

한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이죠. 실로, 성서는 아무리 퍼올리고 퍼올려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미리 판단해버리는 예단(豫斷)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성관념과 관점을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힘을 지닌 책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나의 맹점(blind spot)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으로부터 일깨움 받는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사건의 기록을 놓고도 무수한 관점에서 그 의미의 지층(地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제한된 시각과 관점을 고정시켜 성서를 해석하고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내지는 교과서적으로 정형화하는 것이 얼마나 성서에 대해 우(愚)를 범하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성서는 이미 죽어 박물관화(博物化)되어버린 기록이 아닙니다. 성서를 대하는 이와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자라나는 책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성서 독자가 성서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가 관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표면적 세계 밑바닥에 숨겨져 있고, 쌓여 있는 놀라운 사연들이 한올 한올 풀려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세계의 무궁무진함을 비로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과격’(破格)으로 다가오시며, 예기치 않은 각도에서 날아드는 화살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찌르셔서 ‘전환’(轉換)과 전복(顛覆)의 역설적 논리’로 우리가 이제껏 안심하고 디뎠던 대지를 뒤엎어 새 기초를 세우십니다. —한종호, <성서를 읽음은 곧 하늘의 문을 여는 것> 중에서

## ■ 마/음/으/로/읽/는/글

### 농업 박물관 소식

만일 지금 예수가 오신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똥짐을 지실 것이라는  
권정생 선생의 글을 읽었다

점심 먹으러 갈 때마다 지나다니는 농업박물관  
앞뜰에는 원두막에 물레방아까지 돌아간다  
원두막 아래 다섯 평도 안 되는 밭에  
무언가 심어져 있어서 과랬다  
우리 밀, 원산지: 소아시아 이란 파키스탄이라고 쓴  
꽃말이 세워져 있었다

농업박물관 앞뜰  
나는 쪼그리고 앉아 우리 밀 어린싹을  
하염없이 바라다보았다  
농업박물관에 전시된 우리 밀  
우리 밀, 내가 지나온 시절  
똥짐 지던 그 시절이  
미래가 되고 말았다  
우리 밀, 아 오래 된 미래

나는 울었다(이문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박옥식 박병선 방현복 윤정덕 구성실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임승동 백혜숙 이광용 형인순 박성수 김애경  
 정복순 김정길 최숙화 조문규 진정숙 이봉옥 박영숙 김용길 최영혜  
 김훈동 고광송 이춘희 박영희 이유선 방극숙 김희진 박홍재 양재성  
 임미심 김성한 조영순 김용진 박효선 김용원 임창선

### 월정헌금:

윤성종 김윤정 하정석 이명희 정미경 김승현 김수진 이동천 황경순  
 김남중 오복순 왕수명 이소순 박준희 이기분 조항신 서정순 전영자  
 이희균 김영한 권혁순 박혜경 이은자 김창경 이증자

###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정복순 조순덕 김진경 송동준 박금희 장준호 무명3

생일감사헌금: 이인웅 송임희 박현진      구도헌금: 윤수진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김애경	최희영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이소순	문인옥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김명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박애순	안정숙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필순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이인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이봉옥	오복순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최종원	박현우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임수연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유혜경	김성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박혜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속회 공과 예비교육이 있습니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제2여선교회 주최예배로 모입니다.
3. **기도의 밤** : 7월 6일(수) 오후 7시 30분부터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내면에 빛을 모시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유치부** : 과천 대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5. **봉사** : 7월 6일(수) 오전 11시 15분부터 종묘 앞에서 노인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합니다.
6. **대청소** : 7월 7일 오후 2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7. **신앙실천** : 한국인이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은 주당 3.1시간에 불과합니다. 표본 조사를 한 30개 나라 가운데 꼴찌입니다. 금주에는 고전의 반열에 든 신앙서적을 한 권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 헌화 : 하현철 최성애 집사 (고 하재관 집사님 추도기념)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